

[ 제 54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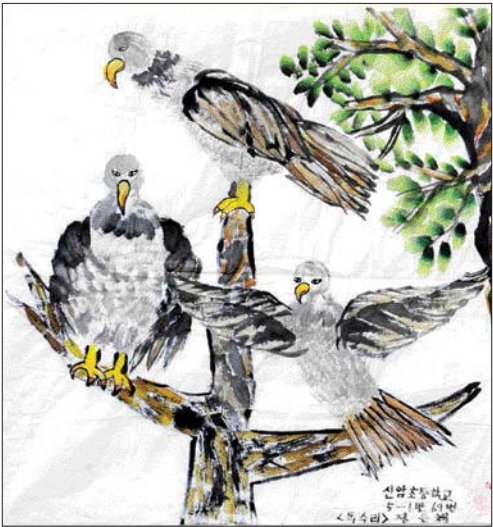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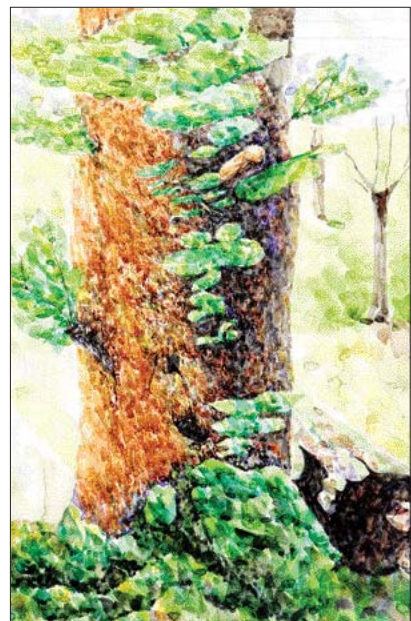
재규어의 꿈 초등부 1·2년 이호현 <동림초 2>



공작새와 가족나들이 초등부 3·4년 김세연 <광주교대부설초 3>



독수리 초등부 5·6년 정은채 <신암초 5>



나무 중등부 이주희 <광주경신중 2>



푸른 연못 고등부 진재영 <첨단고 2>

중등부 시

강

송상혁 <송의중 1>

앞서가려고 서로 밀치지 않네요. 뒤따라간다고 투덜대지 않네요. 친구가 뒤쳐지면 어깨동무 해주고 언제나 제자리 지키며 한 마음 되지요. 들길따라 지구따라 해를 벗삼으면서 친구가 뒤쳐지면 어깨동무하고 끌어주며 안아주는 정다운 강이 흐르네요.

가뭄이 들면 단물이 되어주고 농부의 지친 몸을 씻어주죠. 강가에 갈증난 풀꽃의 목을 축여주는 천사같은 강이 흐르네요.

허기지면 내리쬐는 햇볕으로 배를 채우고 지칠때 포근한 봄바람에게 몸을 맡기며 머무르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강이 흐르네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밀어주며 서로를 아끼고 아끼는 순수한 마음의 강이 흐르네요.

햇볕이 포근한 오늘도 이 세상 가장깊은 곳에 숨어 우리들 마음처럼, 새들의 소리와 함께 사이좋게 합창하며 흘러 가네요.

초등부 시

달

최지윤 <광주송원초 1>

시골 할머니댁에서 집으로 오는 길

차창 밖 달속에 할머니 얼굴이 비친다.

다음에 또 오리며 꼭 안아 주시던 우리 할머니

달 속에 비친 할머니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우리 차를 따라 오신다.

할머니 달은 계속 따라 오신다.

미술

- |                    |                        |                    |                      |                    |                      |                    |
|--------------------|------------------------|--------------------|----------------------|--------------------|----------------------|--------------------|
| 초등부<br>이호현 <동림초 2> | 초등부<br>김세연 <광주교대부설초 3> | 초등부<br>정은채 <신암초 5> | 중등부<br>이주희 <광주경신중 2> | 고등부<br>진재영 <첨단고 2> | 초등부<br>최지윤 <광주송원초 1> | 중등부<br>송상혁 <송의중 1> |
|--------------------|------------------------|--------------------|----------------------|--------------------|----------------------|--------------------|

산문

- |                      |                      |                       |                    |                     |                    |                          |
|----------------------|----------------------|-----------------------|--------------------|---------------------|--------------------|--------------------------|
| 고등부<br>백재열 <안양예술고 3> | 초등부<br>박한빈 <광주미산초 2> | 초등부<br>손영호 <광주올림픽초 4> | 초등부<br>박동진 <송정중 6> | 중등부<br>김남호 <동양여중 2> | 고등부<br>차고운 <상무고 2> | 피아노 초등부<br>이도현 <광양제철초 2> |
|----------------------|----------------------|-----------------------|--------------------|---------------------|--------------------|--------------------------|

피아노

- |                      |                      |                      |                      |                      |                    |                      |
|----------------------|----------------------|----------------------|----------------------|----------------------|--------------------|----------------------|
| 초등부<br>정연지 <화순만연초 5> | 중등부<br>백계준 <화순제일중 2> | 초등부<br>박민유 <광주송원초 4> | 초등부<br>송혜빈 <광주대성초 6> | 중등부<br>김동아 <서울보인중 2> | 중등부<br>김소연 <풍암중 3> | 고등부<br>한소라 <전주예술고 3> |
|----------------------|----------------------|----------------------|----------------------|----------------------|--------------------|----------------------|

비올라

- |                      |                    |                      |                      |                    |                     |                    |                       |
|----------------------|--------------------|----------------------|----------------------|--------------------|---------------------|--------------------|-----------------------|
| 고등부<br>권혜린 <광주예술고 3> | 중등부<br>서정민 <풍암중 3> | 고등부<br>시윤지 <전주예술고 3> | 초등부<br>곽의진 <살레시오초 6> | 중등부<br>나유빈 <문산중 3> | 고등부<br>김슬기 <대성여고 3> | 중등부<br>장영주 <진월초 5> | 중등부<br>조은비 <광주동양여중 3> |
|----------------------|--------------------|----------------------|----------------------|--------------------|---------------------|--------------------|-----------------------|

고등부

산문

아버지 얼굴

백재열 <안양예술고 3>

아앗! 나는 다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내 다리를 밟은 듯하다. 어둠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이런, 미안하구나." 아빠 목소리다. 아직 잠이 덜 깬 나는 다시 잠자리에 눕는다.

이곳 고시텔에 들어온 지 벌써 한달째이다. 앞으로 우리가 지내야 할 605호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갑갑함이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다. 겨우 발을 쭉 뻗을 수 있을까말까한 넓이. 창문도 없이 삼면이 벽이었다. 딱딱한 침대와 지직거리는 낡은 TV는 쓸모가 없었다. 게다가 성인남자 한 명과 이런 좁은 방을 함께 쓰는 것은 고역. 아니 형벌이었다.

아빠는 말이 없었다. 내게 침대를 양보하고 아빠는 바닥에서 잤다. 공동주방에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여 다른 방 사람들과 나눠먹기도 했다. 나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아빠가 너무 고시텔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듯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있어야하면 어떡하지?' 고시텔에 들어온 뒤로 생활도 없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만스러웠다.

"학생, 조금만 조용히 해주겠나? 옆방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거든." 고시텔 주인 아저씨가 들어와 한 마디하고 갔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좁은 방안에서도 내 귀에 겨우 들릴 정

도로 TV는 웅얼거릴 뿐이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TV를 끈다. 방과 방 사이에 놓인 벽은 커튼같았다.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 소리는 열방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모양이다. 학교에 가려고 교복을 꺼내입는데 누군가 또 방문을 두드린다. "학생-" 화가 치민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와버린다. 주인의 당혹스러운듯한 표정이 스친다. 밖에 나와 나는 한참동안 걸었다. 걷는 동안 많은 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학생들이 장난스레 깔깔대는 소리, 부모와 자녀가 걸어 가며 웃는 소리, 랜스레 웃음들이 시큰하다.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두워야 하는 것일까?

걸음을 멈추고보니 어느 중국음식점 앞이다. 그 안에서 아빠가 철가방을 들고 나온다. 깜짝 놀란 나는 몸을 숨긴다. 부름, 배달을 가는지 아빠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린다. 아빠- 나는 한 점으로 떨어져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얼마나 걸었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주택이 보인다. 라인동산 빌라 102동. 당신과 내가 살던 집이다. 아빠는 작은 음식점을 경영했었다. 그 시절은 모든게 즐거웠다. 엄마도 곁에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을 융자받아 쓴 아빠는 빚짓을 버거워했다. 가게사정도 그리 좋진

않았다. 모든 것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가게가 망하고 아빠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도 말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렇게하여 내가 기댈 곳은 죄다 사라져버렸다.

우리가족의 옛날집을 바라보면 나는 계단에 주그러 앉는다. 힘이 쭉 빠진다. 저녁무렵이 되자, 춥고 피곤했다.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뿐이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땀다.

고시텔에 돌아와 나는 침대에 기어들어간다. 달걀, 잠결에 방음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몽롱하게 들린다. 응, 나는 대충 대답한다. 짝! 눈앞에서 불꽃이 된다. 나는 뺨을 부여잡는다. "이 자식아, 싸돌아다니라고 교복사주고 등록금내준 줄 알아?" 아빠의 한껏 격앙된 목소리가 살짝 떨린다. "어딜 갔었던 거야. 이놈아-!" 아빠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낀다.

나는 가만히 아빠를 내려다본다. 나에겐, 우리 두 사람에게는 아직 등을 기댈 가족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단 한사람. 나는 주저앉은 아빠의 등을 껴안는다. 오늘따라 이 등이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아빠의 얼굴을, 기미와 주름이 잔뜩 낀 그 얼굴을 본다. 흐느끼던 아빠도 가만히 나를 끌어안는다. 아빠의 입가가 방긋거리다.

지도 교사상

- |   |   |   |   |
|---|---|---|---|
| ◆음악<br>강 현(광주미산초)<br>강선미(순천율산초)<br>곽수정(상무고)<br>김신오(여도중)<br>김지연(광주송원초)<br>문미정(광주송원초)<br>삼은정(광주신암초)<br>안미영(금부초)<br>안희정(화순제일중) | 오현경(전주예술고)<br>이선경(광주동성여중)<br>이지현(장흥초)<br>장여울(풍암중)<br>하은주(광주문산중)<br>홍기승(광주연계초)<br>◆무용<br>김나영(만호초)<br>김옥영(광주동양여중)<br>이수미(광주수피아여고) | 이수영(곡성목과초)<br>장유경(화순만연초)<br>◆국악<br>김은영(장흥관산초)<br>송한모(광양중진초)<br>조영목(나주초)<br>◆미술<br>강애리(광주동신여중)<br>류정희(광주학운초)<br>안지선(광주월봉초) | 윤미경(유덕초)<br>이수정(광주살레시오초)<br>이재호(조대여고)<br>최 현(광주경신중)<br>최진우(광주예술고)<br>◆작문<br>김영래(대광여고)<br>김지현(광주송원초)<br>박두래(광주대성여중)<br>송승하(광주남초) |
|---|---|---|---|

단체 최고상

- ▲한국창작무용 군무 초등부 (화순만연초)
- ▲현대무용 군무 (광주수피아여고)
- ▲관악합주 (광주동성여중)
- ▲관현악합주 초등부 (광주송원초)
- ▲관현악합주 중등부 (여수여중)
- ▲합창 초등부 (광주송원초)

종합상

-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광주동양여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 ▲종합우수상  
화순만연초등학교  
광주대성여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